

최은희 춤

流 - 흐르다 II

호흡으로 풀어보는 생명과 자연의 춤





최은희 (안무 · 출연)

부산의 한국 창작춤의 터전을 일군 대표적 춤꾼이자 안무가인 최은희는 이화여대와 동 교육대학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였다. 이어 국립국악원(1978)과 정신문화연구원(80~82)에서 궁중무용과 무속무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기를 겸비하여 왔고, 이 기간 동안 **故김천홍, 故한영숙, 이매방, 故김병섭(농악), 김매자**님께 사사했다. 그 후 부산으로 이주하여 부산과 경남의 무속과 민속춤에 많은 연구를 했으며, 이러한 경력은 여러 작품에서 나타나듯 한국의 토속적인 제의식들이 작품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82년 첫 개인 발표회인 [夏祭祭]를 갖고 그 해 대한민국의무제에서 [넋들임]을 안무하여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85년에는 부산 최초의 민간 단체인 '춤 배김새'를 창단하여 지역에 있는 우리 춤 언어를 찾고자, 새로운 창작 기법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30여 년 동안 한국창작 무용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한국무용을 레퍼토리화 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또한 민간 단체 활동뿐만이 아니라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장(1983~1984), 울산시립무용단 초대 안무장(2000~2002)을 역임하면서 부산, 경남 문화 발전에 폭넓게 이바지하였으며, 한국무용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오늘날의 화두에 해답을 찾고자 창작 활동 이외에도 전통무용을 습득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1994)로 지정되었다. 30년이 넘는 무용활동 기간 동안 17회의 개인 공연과 각종 무용제 및 예술제 공연을 통해 50여 편의 작품을 창작하였으며, 1998년 이후에는 네 차례의 춤춤 공연을 선보이면서 군더더기가 없는 간결한 몸짓으로 과거의 춤과 오늘날의 춤을 되새겨 주고 있다. 제의식에 근간을 둔 초기의 작품과 달리 최근에는 무대 매커니즘 활용의 극대화, 한국 전통무용 춤사위의 이미지화, 서사적 구조의 상징화 등 작품 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꾀하여 한국 창작무용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소극장, 대극장, 야외무대 등 무대라는 공간에 따른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현)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사)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 회장, (사)한국무용연구회 부이사장, (사)민족미학연구소 이사, (사)봉생문화회 이사, 한국무용예술학회 부회장

인사말씀

들판에 여름의 뜨거운 태양을 이겨낸 황금빛 곡식이 눈에 선한 가을입니다. 만물의 풍성함을 지닌 이 이가울에, 저의 삶에 일상이 되어진 춤과의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

홀로 오르는 무대를 3년만에 가지는 이번 최은희의 <Solo repertory series III>은 한국창작춤 콘텐츠를 구성하는 형식으로, 영상과 즉흥 연주를 통해 미디어와 타 장르간의 소통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특히, 명상과 선화의 메소드와 영감을 이용한 작업으로 탄생한작품 2010 流입니다. 우리의 몸, 우주와 인간의 내적 호흡, 그 호흡의 흐름에 집중하여 그동안의 최은희의 춤의 삶 일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은희 류'의 구성에 한걸음 다가서는 작품으로 남을 것입니다.

바쁘신 시간중에서도 함께 작업해주신 최인식 교수님, 강영기 선생님, 하용부 선생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10. 11. 2
최은희





流 흐르다... II

호흡으로 풀어보는 생명과 자연의 춤

안무의도

모든 생명체를 유지하게 해 주는 것이 '숨'이다. '숨'은 우주 근본원리이다. 달과 지구의 호흡은 밀물과 썰물에서 그 자태를 우리에게 보여 주듯이 자연속의 어떠한 존재도 호흡 없인 유지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숨을 쉬며 타자와 공감하고 살아가진다. 이 호흡이라는 것에 대한 고찰을 몸짓으로 담아 내었다. 우리 고유의 호흡법에 의한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명상적 기운. 몸이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인 흐름의 구함을 추구한다.

출 연 / 춤 : 최은희, 하용부 음악 : 최인식 선화(그림) : 강영기

STAFF / 무대감독 : 윤준호 / 영상 : 장희철 / 조명 : 장훈석 / 의상 : 가이넷 / 기획 : 안주현 / 홍보 : 정은주 / 사진 : 이호형 / VTR : 김상현 / 진행 : 이은숙, 이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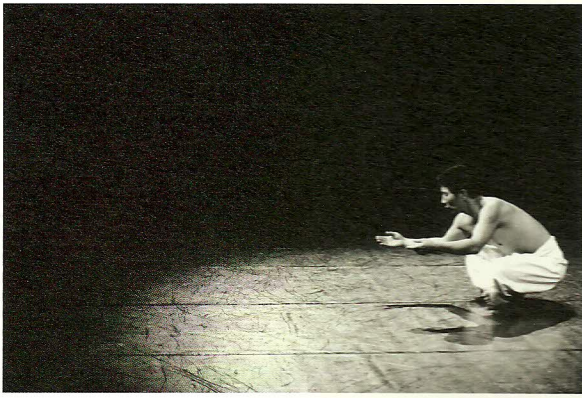


몸 1

행선은 별들의 공전의 몸짓이요 좌선은 자전의 자취이니, 들숨과 날숨의 경계를 춤과 깊은 명상을 통하여 대자연의 본질 진리에 대해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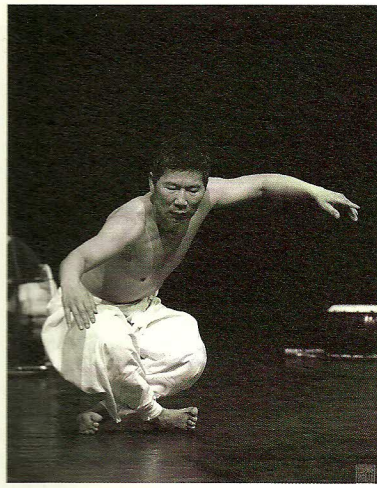
몸 2

우리의 몸, 우주와 인간의 내적호흡 순환질서의 흐름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자태를 드러내고, 나아가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꿈을 심는다.



몸 3

지난날 겪었던 수많은 고비들을 해쳐나가고, 새롭게 기운차고 활기가 넘치는 음악의 조화를 표현한다.



하용부 (춤)

중요무형문화재 제168호 <밀양백중놀이> 예능보유자
밀양연극촌 촌장
영남춤연구소 대표

몸 4

춤·음악 그리고 스스로 소리그림의 선화를 그려보는 교감속에서 서로 어울려 상생의 길을 도모한다.

최인식 (연주)

평소부터 소통의 장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최은희 교수님과 함께 무대에 오르게 되어 무엇보다 기쁩니다. 특히 하용부선생님, 강영기선생님과 함께 공연하는 기회라 더욱 기쁩니다. 이 공연에서 인생의 후반기에서 그동안 축적된 많은 예술적 경험과 혼의 만남을 통하여 소통하며 승화시켜 보고자 합니다

전 경성대학교 예술대 음악학과 교수(작곡, 전자음악)
한국공학 예술학회 창립회장 현 명예회장
부산 전자음악협회 창립회장 현 고문
독일 작곡가협회 및 저작권협회 회원



강영기 (선화)

깊이 있는 춤꾼 최은희 교수님과 한 무대에서 협연하게 되어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대자연의 큰틀을 호흡이라는 간단명료한 주제로 인간과 자연과 생명을 조화롭게 이해 시키고 그 모두가 각각이 아니라 한몸이라는 지극히 평범한듯하지만 생존의 근본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라 더욱 뿌듯한 마음으로 행복해 집니다. 그녀의 춤속에 모두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지닌 철학과 사상이 녹아 있음을 알게 하는 좋은 무대가 될 것 입니다.

중국현지법인 우쭈유한공사 대표이사 동사장 역임.
한울 기공 협회 부회장 역임.
자연의 소리그림-선화연구소 소장(현)

